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

2/24 월요일

아침의 누림

행 2:32-33

32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행 1:1-2, 4-5, 8, 11, 21

1 데오빌로 각하,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때부터

2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리르신 날까지의 모든 일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이 나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5 왜냐하면 요한은 물속에 침례 주었지만, 여러분은 며칠이 안 되어 성령 안에 침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11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늘로 올리르신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21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동안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할 뿐 아니라(엡 4:8-9, 히 9:24),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 올리시어 높이셨다고 말한다(막 16:19, 눅 24:51, 빌 2:9).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신 후에,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부어지셨다. 아들은 올라가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셨으며, 그 영은 부어지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승천과 그 영의 부어지심에 전적으로 관여하셨다. 아들의 죽음에 삼일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고, 아들의 부활에 삼일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으며, 아들의 승천과 높아지심에도 삼일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아들의 승천과 그 영의 부어지심에 완전히 연관되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 년, 3 권, 하나님의 신약 경륜, 7 장, 267 쪽)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약속을 받으시는 것은 사실상 그분께서 성령 자신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서 존재하시기 위해 본질적으로 그 영으로 잉태 되셨고(눅 1:35, 마 1:18, 20),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시기 위해 경륜적으로 그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마 3:16, 눅 4:18).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경륜적으로 그 영을 다시 받으셔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이 땅에서 수행하시도록 그분 자신을 그분의 몸 위에 부으시기 위한 것이었다.(행 2:33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행전 2 장 15 절에서 베드로는 ... “지금은 제삼 시이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제삼 시는 오전 아홉 시였다.

사도행전 2 장 16 절부터 18 절까지는 이어서 “이것은 신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는 정녕 나의 남녀 노예들 위에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라고 말한다. 17 절에 언급된 마지막 날들은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신 때부터 시작하여(벧전 1:20)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지속될 현시대(벧후 3:3, 유 18)를 가리킨다(참조 딤후 3:1 각주 2).

그 영께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입에서 제자들 안으로 그 영을 불어넣으신 것(요 20:22)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영께서 부어지신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전자는 제자들의 생활을 위해 생명으로 그들 안으로 불어넣어지신 그 영의 본질적인 방면이고, 후자는 제자들의 일을 위해 능력으로 그들 위에 부어지신 그 영의 경륜적인 방면이다. 동일한 그 영께서 본질적으로 그들 안에 계시고 경륜적으로 그들 위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그 영께서 부어지신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강림하신 것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그분의 몸(엡 1:23)인 교회를 건축하시려고(마 16:18)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이 땅에서 수행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경륜적인 충일은 사실상 성령의 부어지심이다. 이 부어지심은 성령께서 숨을

내쉬신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또한 오순절 날에 부어지신 성령께서 사실상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사도행전 2 장 21 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약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실행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세기 4 장 26 절에서 인류의 셋째 세대인 에노스 때부터 시작되었다.(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74-7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14

2/25 화요일

아침의 누림

행 20:28

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벧전 1:18-19

18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행 9:17, 31

17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사울 형제님, 형제님이 오던 길에 형제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곧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형제님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으로 충일되도록 하셨습니다.”라고 하자,

31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전진하여, 인수가 늘어났다.

행 2:32-36

32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35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피’(행 20:28)라는 말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며 피조물도 아니시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를 가지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육체 되심 이전에는 분명 피를 갖지 않으셨다. 그러나 창조주이시자 영원하신 분이시자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과 연합되셨다. 그 결과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하나님-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사람으로서 그분은 분명히 피를 가지셨으며, 그 피로 교회를 사 오시고 얻으셨다.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사람이셨으므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있었다. 신성한 요소가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인성과 연합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구주(눅 2:11)가 되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3 권, 교회, 메시지 207, 3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타락한 인류를 구속한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이다. 사람인 우리가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 주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이루실 수 있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타락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피를 흘리셨다.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에는 영원의 요소가 있으며, 이 요소가 그분의 피의 영원한 효능을 보증해 준다.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즉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 사람은 예수라 불리셨고,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셨다. 이러한 분으로서 ... 그분은 사람과 연합되신 하나님이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지라는 면에서만 보면, 분명 그분께는 피가 없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육체가 되신 하나님 곧 사람과 연합되신 하나님이지라는 면에서 보면, 분명 하나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 십자가에서 흘려 교회를 살 수 있는 피가 있으셨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사

오시고 얻으셨다고 말할 수 있었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3 권, 교회, 메시지 207, 38-39 쪽)

빌립의 전도의 일에서처럼(행 8:29, 39),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 움직인 것은 그들의 결정과 선호에 따른 것이거나, 사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어떤 일정에 따라 수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성령에 의해 수행된 것이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은 그들을 막으셨다(16:6). 막으시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의 일부이다.

사도행전 16 장 6 절과 7 절에서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곧장 앞으로 ...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으로 갈 생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밤에 그에게 이상을 보여 주시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이상에서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와 달라고 간청했다(16:9).

‘예수님의 영’과 ‘성령’이 ...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행 16:6-7)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며,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다. 예수님의 영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 그리고 인간 생활과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 곧 사람들 가운데서

수행하는 고난의 사역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했다.(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4, 374-37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4

2/26 수요일

아침의 누림

행 16:6-7

6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7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행 9:15-16

15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16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롬 8:18

18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고후 1:5

5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골 1:24

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눅 1:35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마 1:18, 20

18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유래는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20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대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십시오.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성령’이란 칭호는 주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을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위해 사람의 몸을 준비할 시간이 이르렀을 때 이 칭호가 처음 사용되었다(눅 1:15, 35, 마 1:18, 20). ... ‘성령’이라는 칭호는 주님의 육체 되심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언급의 원칙에 따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출생에 관련되신다.

사도행전 16 장 7 절에서 누가는 성령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전환을 갖는다.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먼저 인간 생활을 하였고, 그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의 영은 성령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신다. 성령은 오직 주 예수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만을 포함하시지만,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십니다.(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4, 37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행전 16 장에서 ... 복음 전파의 일을 하는 사도들의 움직임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그것은 주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에 관여하신 성령에 의한 것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신 예수님의 영에 의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신성한 칭호는 복음 전파의 일을 하는 바울의 움직임이 옛 시대의 길에 속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력히 시사해준다. 만일 그것이 옛 시대의 길에 속한 움직임이었다면,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 언급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다. ... 그 대신에 사도행전 16 장은 성령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누가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사도들이 수행한 복음 전파의 일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새로운 움직임이었음을 시사한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주님의 육체 되심, 인성, 인간 생활,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하여 수행된다. 성령과 예수님의 영은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하십니다. ...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소유한다.

부활하신 후에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 영과 동일하신 분이시다(고전 15:45, 고후 3:17). ...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특정한 요소들, 즉

육체 되심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조성되신 분이시며,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그 분만이 이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추고 계신다. 오직 그 분만이 자격이 있으시다. ... 예수님의 영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의 실재화이시다. 또한 성령이신 예수님의 영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의 총체이시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구주의 잉태되심을 수행하셨던 성령이셨다.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허락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이셨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삼십삼 년 반 동안 인생을 사셨고,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셨으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신성한 생명을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신성한 생명을 번식시키시고, 승천하시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영은 바로 이러한 분의 영이시다. ... 바로 이러한 영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예수님의 총체이시자 완전한 실재화이시다. ... 사도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러한 영의 지시와 인도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4, 376-37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6 년, 2 권, 서신서들에 있는 사람의 영과 함께하시는 신성한 영, 1, 8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5 년, 3 권, 서신서들에 있는 그영, 7-8 장

2/27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8:9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 1:19-20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후 3:2-6, 8

2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쓰였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4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5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같이 여겨,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8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영에 의해 안내받고 지시받고 가르침받고 조성되는지에 달려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 아닌 성령과 예수님의 영으로 구성된 사람이었다. 삼일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인 바울을 완전히 조성했던 것은 주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에 관여하신 성령과,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부활과 승천에 관여하신 예수님의 영이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영으로 구성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가 말씀을 전파하러 나왔을 때 그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다.

이 영께서 우리의 조성이 되셔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일은 이 영의 표현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엘리야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거나 혹은 육체가 되시고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지니신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불가능했다. 엘리야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영이 있을 뿐이었다. 엘리야에게 능력이 충만한 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의 영으로 구성된 사람은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결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공급하는 일을 하거나 그러한 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었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4, 37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실재이시듯이,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실재이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재가 되지 못하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실재이자 실재화이신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재가 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심한 박해를 당하신 사람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은 고난을 견디는 넘치는 힘을 가진 사람의 영이시다. 그분은 사람의 영이실 뿐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힘의 영이시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전파하러 나갔고, 그도 역시 고난을 당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고난의 요소가 있고 박해를 이겨 내며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반대와 박해에 직면하기 위해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영은 자신 안에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자신 안에 인성을 갖고 계신 사람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고 인생의 고난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93, 213 쪽)

로마서 10 장 12 절은 주님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다고 말한다.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며,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다. 주님은 풍성하실 뿐 아니라 10 장 8 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쉽게 누릴 수 있는 분이신데, 이것은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영이신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누린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께서 오신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누림에 관한 책이다. 12 장에서 바울은 그분을 누리는 법에 대해 말한다. 주님을 누리는 길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12:3, 1:2). “주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을 마신다(12:13). 고린도전서 15 장 45 절은 주님께서 지금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고 말한다. 우리가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분은 그 영으로서 오신다. 내가 실제로 살아 있고 존재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는 내게 올 것이다. 주 예수님은 참되시고 살아 계시며 존재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오신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5, 37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5; 위트니스 리 전집, 1965 년, 1 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영, 1 장

2/28 금요일

아침의 누림

행 1:3

3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 주셨고,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눅 17:20-21

20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21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행 8:12

12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나 여자나 다 침례를 받으니,

행 19:8

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변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행 20:25

25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행 28:23, 31

23 그들은 바울과 날짜를 정해 두었는데, 그날이 되자 더욱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해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서와 신언자들의 글을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31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주님께서 왕국에 관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왕국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교수’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사십 일 동안 그분께서 이전에 가르치신 것을 반복하셨다고 믿는다.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주 예수님은 아직 육체 안에 계셨고, 따라서 아직 그분의 제자들 안에 계시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다.(사도행전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4, 35-3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왕국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각 곧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 요한복음 20 장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인격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결과 사도행전 1 장에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 한 면에서 그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께서 그들의 생명과 인격으로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달라졌다. 생명 주시는 영께서 그들 안에 계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을 형성하시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확산되신 것이다. 사도행전 1 장 3 절에

하나님의 왕국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도들이 장차 오순절 후에 위임받아 전파해야 할 주요 주제가 왕국일 것임을 가리킨다(8:12, 14:22, 19:8, 20:25, 28:23, 31).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축복과 누림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표이다.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막 1:15), 이것은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서, 이 왕국의 신성한 본성에 어울리는 신성한 생명을 갖기 위한 것이다(요 3:3, 5).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가 하나님의 의와 화평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 시대에 이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롬 14:17).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오는 왕국 시대에 상속받아 누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데(고전 6:9-10, 갈 5:21, 엡 5:5),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계 20:4, 6).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계 21:1-4, 22:1-5, 14, 17).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을 통하여(고전 4:15)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교회의 실재이다. 거듭남은 왕국의 입구이며(요 3:5), 믿는 이들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왕국의 발전이다(벧후 1:3-11).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구주이며(눅 17:21), 이 씨는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에 뿌려져서(막 4:3, 26)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되는데,

하나님은 이 영역을 그분의 왕국으로 삼으시어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신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36-3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호세아-말라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15;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젊은이, 개정 2판, 4 장

3/1 토요일

아침의 누림

행 28:30-31

30 바울은 만 이 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31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행 14:22

22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벧후 1:3-11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5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6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7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8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9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어,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날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입니다.
10 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거듭나는
것이고 ... 왕국의 발전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사는
교회생활이며(롬 14:17),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보상으로 상속받을, 오는
왕국으로(갈 5:21, 엡 5:5) 발전될 것이다.
결국 이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3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하고(1:3) 하나님의 왕국으로
끝난다(28:31).

왕국을 선포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28 장 31 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으로
증명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함께 간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다.

사도행전은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더해지도록 열려 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과 확산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령의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긴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과
확산을 위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많은 아들들(롬 8:29)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고
그분의 몸(12:5)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고 그분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 책 뒤에 나오는
스물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을
통해 산출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영역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자라 나오고 확산된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확산에 대한 기록이며,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곧 그리스도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널리 전파된 복음은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행 5:42)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것은 또한 복음인 하나님의 왕국(8:12) 곧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다.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온 땅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까지(계 11:15) 계속되고 전진 될 것이다.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육체가 되셨고 인생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여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골 2:9)는 완성되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체현이신 이분은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으로서 자신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확산시키신다. 즉,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도록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변화된 백성 안으로 일해 넣으심으로 그들을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신다. 교회의 궁극적인 결과는 영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총만하고도 영원한 표현인 새 예루살렘일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영역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일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복음 전파의 실재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1, 60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5, 69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젊은이,
개정 2판, 4장

찬송: 242 (英)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 (中:196)

- 1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됐네
부활하신 하나님-사람 승천하여 그 영 되셨네.
- 2 승천하신 예수로부터 우리 영에 그 영이 임했네
그의 모든 실재 이-제 우리 체험 되게 하셨네.
- 3 예수 그리스도의- 영 모든 성분을 포함하였네
신-성과 인성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감춰져.
- 4 이 영 안에 포함돼 있네 죽음의 효능 부활의 능력
승천 보좌 권위와 왕국 하나님의 모든 성분이.
- 5 이 영이 그 모든 성분을 우리 영 안에 작용케 하네
그의 기름 바름 통하여 우리도 주 풍성 누리네.
- 6 우리 모든 비결 되-신 모든 것 포함한 영 인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돼 우리 안에 운행하시네.

3/2 주일

아침의 누림

계 21:1-4

- 1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4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계 22:1-5, 14, 17

-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 3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 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 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